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축 사



2022. 8. 29.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

존경하는 대한변호사협회 이종엽 회장님 그리고 회원 변호사 여러분!

오늘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어서 그 의미가 한층 더 각별하다고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1952년 창립 이래 70년 동안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변호사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온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1989년 이래 매년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 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사회에서 법의 지배 실현을 위한 과제를 검토·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그 뿐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는 1986년부터 국내 인권현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인권

보고서' 를 발간하고, 세계의 법률가들과 다양한 법률문화 교류를 하는 등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소임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변호사 여러분!

법치국가의 원리는 우리 헌법의 밑바탕에 있는 기본원리입니다. 법의 지배란 무엇보다도, 폭력과 자의가 아니라 합리성과 이성에 의한 지배를 말합니다.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으로 법을 만들고, 이성의 힘으로 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입니다. 국민의사의 총체적 표현이자, 우리 국민들의 가치지향이 담긴 헌법에는 합리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지혜가 녹아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는 헌법의 우위가 인정되고, 국가공동체의 모든 영역이 헌법에 따라 영위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지평이 헌법적 법치주의로 고양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헌법의 근본이념과 가치, 기본원리를 더욱 주목하고 연구하고 구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논의할 ‘법의 지배와 변호사’라는 주제는, 법의 지배라는 헌법원리를 구현함에 있어서 변호사의 역할과 시대적 소명에 대해 논함으로써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습니다.

법의 지배라는 헌법원리의 구현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이를 위한 선도적 역할은 법률가 모두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창립 이래 지금까지 법의 지배를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그 책무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피의자 접견교통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결정, 수형자의 변호사 접견 제한에 대한 위헌 결정, 변호인의 수사기록 열람·등사에 관한 일련의 결정 등을 통해 사법(司法) 분야에서 변호사의 사명과 역할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의 정신을 구현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의 발달, 기후변화, 팬데믹 등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사회의 양극화 현상 역시 전례가 없을 만큼 심각합니다. 이러한 변화와 혼란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입니다.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단단한 기둥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법을 만들고 정의롭게 법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인권 보장과 법의 지배라는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은 힘을 모아 매순간 전진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저절로 후퇴하게 되는 길입니다. 높은 도덕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고와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법의 지배 확립의 주춧돌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헌법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변호사대회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 원칙이 더욱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번 변호사대회의 개최와 대한변호사협회
창립 70주년을 축하드리며, 대한변호사협회의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장 유 남 석